

이동진 진도군수, 민생 현장 목소리 청취



진도군은 이동진 군수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연초 시행해 오던 군정설명회 가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군정 주요 사업장·농정 현장 등 직접 방문 “소그룹별 소통 강화...군정 반영 노력할 것”

이동진 군수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군정 주요 사업장, 농정 현장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의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이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읍·면장과 함께 마을대표, 농업인, 귀농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현장’인 진도읍 송현·포구마을 방문해 직접 추진 상황을 살피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많아진 취약 계층을 방문해 애로사항

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마을 주민들은 “군수가 직접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등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생각하고 보살펴줘서 매우 든든하다”며 입을 모았다. 이동진 군수는 “마을과 사회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 대화하는 등 소그룹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소통 행정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군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장흥 유치자연휴양림, 화재 예방 총력 야영객 안전사고 예방 위한 화재안전키트 무료 제공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은 화재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등 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키트 무료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야영객의 전열기, 가스버너, 숯불 등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 및 일산화탄소 질식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흥군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가족 단위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치자연휴양림의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을 위해 화재안전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장흥소방서와 합동으로 봄철 야영장 화재예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안전키트는 연기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자 호루라



기, 간이 소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자연휴양림 이용 시 관리 사무소에서 대여 장부를 작성하면 누구나 무료 대여가 가능하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유치자연휴양림에 오시면 반드시 화재안전키트를 제공받으셔서 편안하고 안전한 추억을 만끽하시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켜 건전한 휴양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꽃작약’, 온라인 직거래 판매 네이버 스토어팜 온라인 판매로 화훼농가 어려움 극복 나서

강진군은 전국 물동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노지용 꽃작약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관외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다.

강진군 피플영농조합법인인 네이버 스토어팜(<https://smartstore.naver.com/peony2050>)을 통해 꽃

작약 혼합색상 10송이를 16,000원(택배비 포함)에 판매한다.

꽃작약은 향기가 진하고 달콤하며, 빼어난 모양으로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가졌다. 함박꽃이라 불리울 정도로 꽃이 크고 풍부해 결혼식 부케 등 장식용으로 많이 쓰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작은 결혼식’(스몰 웨딩)이 대체가

되면서 화훼 소비 급감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훼단지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통해 공장 거래에 전량 의지하였던 화훼 유통계에서 벗어나 “화훼 재배단지 온라인 직거래 택배 판매”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유통시장 개척으로 화훼공판장 가격 안정과 함께 농가 소득 창출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윤영상 피플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화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최고 품질의 작약



진한 향기와 함께 수줍은 꽃말을 물 머금은 ‘강진 꽃작약’

꽃 재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향긋한 기운을 담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6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위생 사각지대 차단 성과...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관표창

해남군이 6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1년도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에서 6년 연속 기초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식품 안전관리 평가는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기초위생관리, 정부 주요시책, 가점 등 4개 영역 12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1,714개소를 대상으로 6,000여건에 이르는 점검을 상시 실시한 것은 물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및 지역방역일지리를 활용한 예찰활동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해 왔다. 또한 현장 지도 점검 및 수거검사 등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를 적극 활용하는 등 기동성있는 식품안전관리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군은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소규모 단선처리 농수산물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음식 덜어먹기 홍보를 지난해 연중 실시해 큰 효과를 거두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군민들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믿고 먹을 수 있는 청정해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장흥군이 군민의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2021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의 뜻을 올렸다.

장흥군은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2,970백만 원을 지원하여 총 1,149동 철거 및 26동 지붕 개량을 추진했다.

올해 장흥군은 1,533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주택 300동과 비주택(창고·축사) 45동을, 주택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 대상 37동과 일반 지원 대상 23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흥=김도영기자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서 완도 수산물 우수성 알렸다

완도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전시회인 ‘2021 서울 국제 수산 식품전시회’에 참가해 청정바다 완도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군은 수산 기업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수산 바이어, 전문가, 유통업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최적의 수출 및 내수 비즈니스 기회의 장인 서울 국제 수산 식품전시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군 수출 기업 7

곳과 함께 완도군 공동관을 운영했다.

완도군 공동관 부스에 참가한 업체는 누리영어조합법인(전복), 다시마전복수산물(전복), 완도사랑S&F(전복), 해정정(해조류), 세계로수산물(해조류), 완도다(해조류), 흥일식품(해조류) 등 7 곳이다.

전시회에는 활 전복, 전복 차우더(수프), 김, 미역, 해초 샐러드, 해초 국수, 전복장, 전복 절편 등 다양한 수산식품을 선보였다.

완도=이민혁기자

